



남원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실전 훈련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봉사자 19명을 대상으로 남원 요천에서 수상구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봉사자들은 오는 7월부터 119구조대원을 도와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1차로 119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교육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받은 후 2차로 남원 요천 일대에서 ▲수상구조 기법 ▲수상안전용품 활용법 및 구명환 활용법을 실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롭게 정비

진안군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신규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올해 처음 진행했다.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협의체를 정비하고 앞으로 정천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 회의수당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논의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을 위한 특화사업 등 향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9월부터 소방시설 분리발주 시행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과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 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기준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엇보다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기준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 인사 ◀◀
- 농촌진흥청
 - ◇도원장 승진 ▲전북도 농업기술원장 박경숙
 - ◇도원국장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영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권혁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정찬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권태룡
 -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중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권철희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박정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장 황남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장 정명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이우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장 이동혁
 -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조은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박교선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권도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유승오
 - ◇3급(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선진
 - ◇4급(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기영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 김순자
 - ◇4급(기술서기관)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김효경
 - 전북선관위
 - ◇4급 승진 ▲전라북도선물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김기용 ▲전주 시완산구선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재만 ▲정읍시선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병주
 - ◇4급 전보 ▲덕진구선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종우 ▲김제시선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진석 ▲원주군선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병진
 - 전주시청
 -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 ◇4급 전보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발로 뛰는 시민의 '안전 지킴이'

익산소방서 안동춘 소방경,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익산소방서 소방경 안동춘 구조구급팀장이 2020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모범공무원상은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적극·창의적인 자세로 출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실무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상 영예를 안은 안 팀장은 1993년 전북소방에 입문해 26년간 근무하는 동안 4,250건의 화재·구조현장 출동, 680명의 인명을 구조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또,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감염전



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2019년에는 전국 장애인체전을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을 통해 대형재난 방지에 힘을 보탰으며, 특히 근무기간 동안 180여회의 소방훈련을 추진하며 대원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안동춘 팀장은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모범공무원 표창을 전달받게 된다.

수상소감으로 안동춘 팀장은 "불철주야 고생하는 익산소방서 직원을 대표해 이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 상을 계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산서면 이룡마을, 풍년을 기원 '씨레시킴' 행사

장수군 산서면 이룡마을에서 모내기철 노고를 풀고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씨레시킴' 행사가 열렸다. 이번 씨레시킴 행사는 최근 산서면 육묘장에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농업으로 인한 노고를 치하하고 마을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화합을 도모, 이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기원했다. 산서면 이룡마을은 잊혀져가는 효를 지켜가는 마을로 49년째 해마다 효 잔치, 새해 합동 세배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병원 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번기 동안 수고한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금현 실장은 "비슷비슷하고 다 같은 마을 사업이 아닌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 그래서 삶이 더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서, 합동으로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순창군 해병대 전우회와 팔덕제 저수지에서 상반기 합동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은 여름철 급증하는 수난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기위해 마련되었으며, 수난사고 특성에 따른 전문지식과 응용기술의 습득을 통해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과 유관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수난사고 요구조사 수색 및 구조 ▲인명구조 이론 및 실습 ▲스쿠버 이론 숙지 ▲수난사고 유형별 환자 기초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민성 119구조대장은 "여름철에는 잠마나 폭우로 인해 고립이나 휩쓸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수난사고 대비 체계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대강면, 다문화가족 간담회 개최

남원시 대강면(면장 이종근)은 29일 다문화가족 및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문화가족의 현 상황과 고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강면의 결혼 이민자수는 14명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12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부교육을 통해 다름으로 보는 부부 소통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 대표는 "부부교육을 통해 있고 있던 부부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바쁜 일상에 침묵 같은 날을 만들어 주신 면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벌 쏘임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최근 높은 기온으로 벌들의 출현이 잦아짐에 따라 야외활동 시 벌 쏘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벌집제거에 나섰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산행·야외활동 시 흰색, 스포레이 등 강한 냄새 유발하는 물질자제 ▲밝은 색상의 옷 지양 등이며,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머리와 몸을 감싸고 바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 강종택 팀장은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알레르기 기가 일어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환부에 냉찜질을 해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선서식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석근) 최근 자치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위원 선서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부터 자치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치역량을 모아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그간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 행사는 이석근 주민자치위원장의 하반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박원순 간사가 자치위원을 대표하여 '자치위원 선서문'을 낭독했다. 선서문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개인 대신 공익을 추구하고 반칙과 특권 대신 경쟁과 배려를 생활화 할 것과 책과 신문에 다가가서 지혜를 쌓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